

고사리손들의 '캠핑 추억'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산과 바다가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피서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쟁쟁 내리찍는 햇살을 등에 업고 자연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아니지만 황룡강의 시원한 물줄기와 푸릇푸릇 잔디 언덕이 있는 광산구 임곡고 고수부지에서 피서 인파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여유로움이 가득하던 지난 3일 임곡고 고수부지에서 분주하게 몸을 놀리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뽕과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그늘을 만들어줄 텐트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아빠의 텐트 치기가 재미있어 보이는지 꼬마 녀석

들도 가세해 분주합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텐트 치기는 역시 호흡이 중요한가 봅니다.
 처음 맞춰보는 호흡에 장단이 맞물리었고,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배가 되지만 아이들은 텐트치기의 근사한 추억을 선물 받았습니니다.
 요즘은 단지기만 하면 딱딱하고 완성되는 원터치 텐트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폴대를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차근차근 완성해나가는 텐트가 피서철의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가던 텐트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대던 피서철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응급실에서

한 농부가 팔이 부러진 채 응급실에 실려왔다.
 “어쩌다가 팔이 부러지셨죠?”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장화 속에 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돌에 발바닥이 자주 찢리자 돌 위치를 바꾸려고 농장안의 퓨즈 박스를 쥔고 서서 한쪽 다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셨나요?”
 “아니요, 내가 퓨즈 박스에 가덴 채 한 쪽 다리를 미친듯이 흔들고 있으니 다른 일꾼이 내가 감전된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퓨즈박스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그 친구가 몽둥이로 내 팔을 내리쳤습니다.”

▲골동품

한 청년이 봉사활동을 위해 노부부가 사는 집을 방문했다.
 80세가 넘는 두 노부부가 여러 해에 걸쳐 수집한 골동품을 감상하는 것을 보고 청년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골동품이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건 바로 나지.”

▲동병상련

한 여자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길을 잘못 들어 한 해군 비행장으로 진입했다. 비행장 정문을 통과해 야만 차를 돌리 수 있게 된 여자가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경비병에게 말했다.
 “난 정말 여기 오고 싶어 온게 아니에요.”
 그러자 경비병이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대답

목사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양들을 이끄는 지도자란다. 나는 양떼를 푸른 들과 깨끗한 시내로 데리고 간다. 내가 어디를 가면 양들은 나를 따라오지.”

이렇게 말한 뒤 목사는 “내가 누구지?”하고 물었다. 양치기라는 대답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둘러보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수줍게 말했다.
 “숫양 아니에요?”

▲옆집 부인이 아내보다 좋은 이유

1. 매일 보지 않아도 된다.
2. 마누라는 인상만 쓰지만 옆집 부인은 볼 때마다 항상 반가워한다.
3. 마누라는 안 바뀌지만 옆집 부인은 가끔 바뀐다.
4.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5. 적은 인사말에도 웃음으로 답한다.
6. 딱어설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마누라가 옆집 부인보다 좋은 이유 하나는?
 “밥을 해준다.”

▲세 장의 봉투

한 사장이 퇴임하면서, 신임 사장에게 봉투를 세 개 건네 주면서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순서대로 봉투를 열어보게.”
 아닌 게 아니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위기가 찾아왔다.
 사장은 첫 번째 봉투를 열어봤다.
 거기에 적힌 비결은 ‘전임자를 비난하라’였다.
 신임 사장이 실제로 그렇게 하자 많은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잠잠해졌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사장은 이번에는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봤다.
 봉투 안의 메모지에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인력 삭감 계획을 발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수습했다. 그런데 몇 년 후 다시 위기가 오자 그는 새로운 비책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사장은 봉투안에 담겨 내용을 보고 사색이 됐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똑같은 봉투를 세 장 준비하라’

리빙 센스

피부에 좋은 음식①

▲당근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체내 흡수를 위해 식용유에 볶아 먹는 게 좋다. 그러나 다른 야채들과 섞으면 다른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당근 껍의 경우 껍질째 감관에 갈아 사용한다. 피부가 건성일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와 꿀을 섞어 사용 후 찬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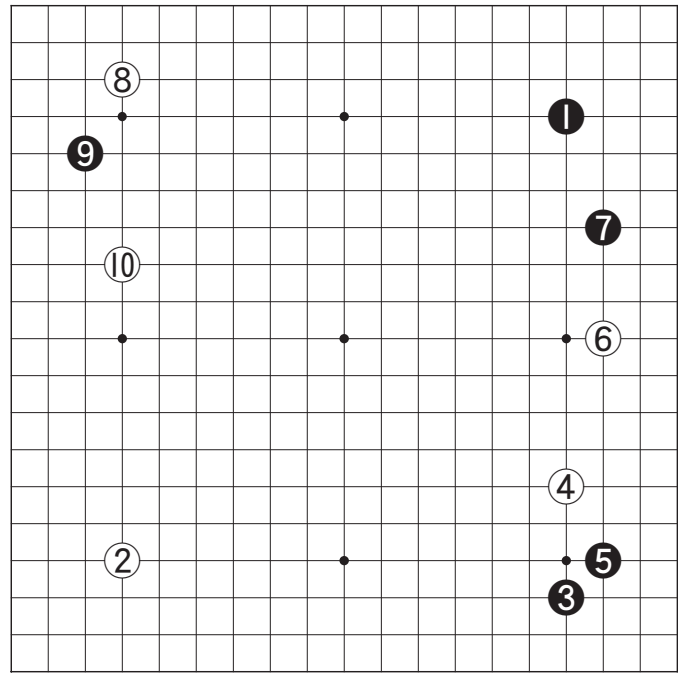
화장품 알레르기로 습진이 생겼을 때 감자 껍을 하면 좋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만큼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좋고, 껍을 할 때는 밀가루나 꿀을 섞을 필요 없이 감자만 껍질을 벗겨 감관에 갈아 사용하면 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7월 5일 丁丑)

子	36년생 개운치 않으니 좌측을 살펴보고, 48년생 부부 일진이 예상되니 조심하라. 60년생 유혹수에 속이 타니 조심하라. 72년생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84년생 부부의 주변에서 소경이 일어나니 나누면 격정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8
丑	37년생 나누면 배가 뒤틀리 일이 즐겁다. 49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61년생 차분하게 돌아보며 실리로 정리하라. 73년생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라. 85년생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18, 44
寅	38년생 기류가 답답하다 막힐 곳을 살펴보고, 50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재충전을 충분히 하라. 62년생 대고는 없지만 큰 득도 없다. 74년생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본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1, 30
卯	39년생 광범한 하루이니 고쳐보라. 51년생 주변을 살펴보고 나쁜게 보인다. 63년생 업무상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라. 75년생 돈거래는 삼가야 손실이 적어진다. 행운의 숫자 : 20, 34
辰	40년생 하늘 한번 우리러 보라 부끄럼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52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4년생 김사 계속 무리나 손아래 사람이 고생이 있다. 76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2
巳	41년생 친구가 차가 양쪽에 부모님을 살펴보고 어른이 안 보인다. 53년생 자녀로 불편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65년생 문서는 꼼꼼히 서명해 천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77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처고 격정된다. 행운의 숫자 : 22, 35
午	42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구나. 54년생 희망한 아침이니 계획대로 추진하라. 66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고, 78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2, 41
未	43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인은 괴롭다. 55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음을 쌓고, 67년생 큰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미루라. 79년생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 준비하고 나가라. 행운의 숫자 : 23, 43
申	44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의기투합 쌓아보라. 56년생 직장과 남편이 끈정에 처할 수 있다. 68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라. 80년생 열 것으로 말썽 나니 대비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4, 16
酉	45년생 사랑은 이제부터다. 57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연정은 서로가 책임이다. 69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수도 생기기 즐거운 일이다. 81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 없이 맞는다. 행운의 숫자 : 24, 43
戌	46년생 잠재현상이 나타나니 남에게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8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70년생 계획은 있으나 될 듯 될 듯 미루어진다. 82년생 빈 문서잡고 눈물 날라. 행운의 숫자 : 17, 31
亥	47년생 후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 59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고맙게 생각하라. 71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깨끗한 마무리가 없다. 83년생 어른의 지혜를 빌려라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42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바둑대회

일생일대의 큰 승부

4회전 3국 1보 (1~10)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남교사회의 김영수 5단이 최종국에서 난적이자 호적수인 북구청 허우석 5단을 만나 일전을 겨루게 되었다.
 허우석 5단은 팀의 성적이 저조해 단체전 입상은 물론이고 2승1패를 기록하고 있어 개인전 4강진출도 거의 좌절된 상태지만, 이 판을 이긴다면 와일드카드도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나다란 희망이 생긴다. 적어도 이 판만은 꼭 이겨야 하는 절박한 처지이다.
 김영수 5단의 전남교사회는 박운섭 5단과 성덕호 5단이 각각 3승1패를 기록하는 선전을 펼쳐 이 판을 이긴다면 단체전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자동으로 개인전 4강진출이 보장된다.
 일생일대의 큰 승부인 판을 이 판을 꼭 이겨야만 하는 무게를 책임지고 안고 있다.
 두사람의 역대 전적은 호각세다. 그만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적수 중의 적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백 4가 호방한 걸침이며 10까지 서로가 시간을 몰스듯 하는 신중함 출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류동완 초단, 바둑리그 7연승

지난해 프로바둑에 입문한 ‘늦깎이 초단’ 류동완의 활약이 눈부시다.
 제일화재 소속인 류 초단이 지난 3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08한국바둑리그 8라운드 4경기에서 배준희 2단(경북 월드메르디앙)을 맞아 212수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류 초단은 바둑리그 7연승을 달성하며 이세돌 9단에 이어 다승 2위에 올랐다.
 그는 첫 대국에서 지난해 LG배 준우승자인 한상훈 3단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최원훈, 송태근, 김형우 김주호, 윤찬희 등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217>

Do you need me to do anything for you?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A : Do you need me to do anything for you?
 B : Yah, I need you to fix dinner.
 A : I can handle that.
 B : Thanks.

A :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B : 예, 저녁 좀 준비해주세요?
 A : 그러죠.
 B : 고마워요.

* fix : (식사를) 준비하다, 요리하다
 * handle : 처리하다
 * 믹서기를 좀 손봐 주세요.
 = I need you to fix the mixer.
 * 저는 당신이 메리한테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 사줬으면 해요.
 = I need you to buy Mary a lapto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17>

何計算(けいさん)してるんだい
 뭘 계산하고 있는 거야?

A : 何計算(けいさん)してるんだい.
 B : 出張費(しゅちやうひ). 交通費(こうつうひ)と, 宿泊費(しゅくはくひ)と, 食事代(しょくじだい)が 支給(しきゅう)されるんだ.
 A : えっ, うちの會社は食事代は自分持ちだよ.
 B : そう, 嚴しい會社だね.

A : 뭘 계산하고 있는 거야?
 B : 출장비야. 교통비와 숙박비, 식대가 지급돼.
 A : 옛, 우리 회사는 식대는 자기가 해결하는데.
 B : 그래, 짠 회사구나.

嚴(きび)しい: 엄하다, 어렵다
 自分持(じぶんもち): 개인부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v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194>

咱們誰跟誰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A: 都1點了, 我要走了。
 dōu shí yí diǎn le, wǒ yào zǒu le
 모두 1시인데, 난 가려겠다.
 B: 我送你回家吧!
 wǒ sòng nǐ huí jiā ba!
 난 널 집에 데려다 줄게.
 A: 我不想麻烦了。
 wǒ bù xiǎng máfan le.
 난 귀찮게 할 거 없어.
 B: 客气什么, 咱們誰跟誰呀?
 kèqi shénme, zánmen shuí gēn shuí a?
 리지 선데,咱們 誰어跟 誰어?
 A: 별말 하지말. 난 가려겠다.
 B: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A: 난 귀찮게 할 거 없어.
 B: 관 그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送 [sòng] 배운다, 베풀다 주다
 麻煩 [máfan] 귀찮다, 성가시다
 客气 [kèqi] 작살하다, 겸손하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34>

氷炭之間(빙탄지간)
 얼음 빙, 숯 탄, 어조사 지, 사이 간

빙탄지간(氷炭之間)은 얼음과 숯불의 사이라는 뜻으로, 둘이 서로 맞지 않아 화합(和合)할 수 없는 사이를 비유한다. 이렇다면 군자와 소인과 같은 사이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동방삭(東方朔)은 재치와 해학이 뛰어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황제에게 직언을 일삼고, 교활하고 아첨한 무리들과는 평생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초(楚)나라의 우곡시인 굴원(屈原)을 추모하며 ‘칠간(七諫)’이라는 시 7수(首)를 지었다. 그 중 자비(自悲)라는 시에서 “얼음과 숯은 서로 함께할 수 없으니(빙탄불가이상병해·氷炭不可相并兮), 내 본디 목숨이 길지 못함을 알겠구나(오고지호명지불장, 吾固知人命之不长)”라고 노래하였다. 충성스런 굴원과 아첨배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얼음과 숯불에 비유하여, 간신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굴원의 심정을 노래하여 굴원의 절개를 부각시킨 노래구절이다. 즉 충성스러움과 아첨함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비유이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며, 빙탄지간이다. 물과 불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수화불상용(水火不相容)도 같은 뜻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